

코로나 한파 녹인 '삼진그룹'

개봉일 10월 평균관객 47% 회복
잇단 새 영화 개봉에 극장가 활기
"신규 작품 연속돼야 시장 살아나"

감염병 사태? 그래도 '봄 업 효과'가 있다. 결국 재미있는 신규 작품이 그 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극장 관객이 70%나 줄어든 가운데 관객 호평을 받은 개봉작이 그 빈 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화계는 '웰메이드' 영화의 극장 개봉이 절실하다며 배급사와 각 극장의 더욱 적극적인 콘텐츠 수급을 주문했다.

●개봉작 없는 시장은 줄어든다

영화 배급 전문가인 영화사 하하필름스의 이하영 대표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월 평균 관객수와 올해 각 달의 관객수를 비교 분석해 "개봉작에 대한 관객 기대치가 분명 존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2월 중순 이후 3~5월까지 극장 관객수는 최대 90%나 줄어들었다. 10년간 월 평균 3월 1135만2440명·4월 1119만1160명·5월 1672만1510명에서 올해



'새 영화 개봉만이 영화계를 살리는 길일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최근 개봉 2주 만에 100만 관객을 모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얼어붙은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3월 183만4000여명·4월 97만2572명·5월 152만6236명으로 각각 82~90%나 줄어들며 영화계와 극장가의 위기감을 불렀다.

이 대표는 "이렇다 할 개봉작이 눈에 띄지 않았고 적지 않은 영화가 개봉을 미루거나 취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고 6월 이후 신규 작품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수치는 다소 회복되는 듯했다. 실제로 '수살아있다'와 '반도' 그리고 여름 시즌을 노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 등이 선전했다. 10년 평균 7월 2153

만2459명·8월 2630만5390명이었던 관객수는 올해 7월 561만8677명·8월 883만4602명으로 각각 28·32%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승리호' 등 기대작이 개봉을 연기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9월에는 10년 평균 대비 19%로 낮아졌다. 관객의 발길을 이끌 만한 화제작도, 기대작도 없었다.

●잇단 개봉, 시장 키운다

이후 추석 연휴 시즌이었던 9월 말부터 10월까지 '담보' '소리도 없이' 등이

반등의 기회를 찾았다. 10년 평균 11월 1385만9490명의 32% 수준까지 끌어올린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선전과 최근작 '도굴' 등도 힘을 냈다. 이 대표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개봉 이후 "3주 동안 10년간 평균 대비 34% 수준까지 관객수도 늘어났다"면서 "이 영화의 개봉 당일인 10월22일에는 47%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하영 대표는 "추석 이후 10월15일 '소리도 없이', 그 일주일 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다시 2주 후 '도굴'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시장이 봄 업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에는 봄보다 가을 시장에 관객이 늘었다. 개봉작이 그만큼 봄 시즌보다 많았기 때문이다"면서 "신규 작품이 연속 개봉해야 시장도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을 재조정해 좀 더 많은 신규 작품을 극장에 내걸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의 권지원 대표는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을 조정해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재투자도 안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팬이 원한다면" 김준수·이승기 가수 컴백

"댄스 가수" "가수 컴백 시급해"
김준수, 4년 만에 정규 4집 발표
이승기는 15일 '뻘한남자' 선공개

김준수와 이승기가 팬들의 쇄도하는 요청에 가수로 '강제 소환'돼 돌아온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뮤지컬과 예능프로그램, 연기 활동 등에 주력해오다 팬들이 "가수로 활동해 달라"며 잇따라 요청하자 각각 4년과 5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고 무대에 선다. 서른셋 동갑내기. 2004년 같은 해에 데뷔해 각 장르에서 한 획을 그으며 줄곧 정상을 지켜온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신곡을 선보이며 솔로가수로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무대를 장악해온 김준수(XIA)가 10일 두 번째 미니앨범 '핏어핏'(Pit A Pat)을 발표하고 댄스가수로 복귀했다. 새 앨범은 2016년 발표한 정규 4집 '시그니처'(SIGNATURE) 이후 4년 만이다. 온라인 콘서트도 여는 등 팬들과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준수는 가요계에서 라이브로 발라드와 댄스 장르의 음악을 모두 소화하는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가수로 꼽혀왔다. 하지만 "댄스가수로 돌아와 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으로 자신만의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공개한 뮤직비디오에서도 김준수는 전매특허인 화려한 댄스 실력을 자랑했다.

김수성 짙은 발라드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 '너를 쓴다', '눈이 오는 날에는' 등 진한 감성을 담은 발라드 곡으로 늦은 가을에서 첫눈 오는 날까지, 지나는 한 해를 팬들과 음악으로 정리하겠다는 바람을 녹여냈다.

팬들의 요청에 응당한 건 이승기도 마찬가지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약해온 그는 본업인 가수로 돌아와 달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5년 만인 다음 달 정규 7집을 발표한다. 앞서 이달 15일 앨범 수록곡 중 '뻘한 남자'를 선 공개한다. 가수 윤종신이 작곡했다.

이승기는 출연 중인 SBS '집사부일체'에서 7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선보이면서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해당 영상이 유튜브 700만 뷰를 넘어서는 등 화제를 모았고, 팬들은 "가수 컴백이 시급하다"는 댓글로 이승기의 가수 복귀를 희망했다. 10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고된 끝에 복귀를 결심했고, 완성도 높은 앨범을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그간 뮤지컬과 연기 활동에 집중했던 가수 김준수(왼쪽)와 이승기가 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각각 4년과 5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하게 됐다. 사진제공 | 씨제스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테인먼트



보아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보아의 할약상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 1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의 20년 음악 활동을 조명하는 '2020 보아'를 12일 유튜브와 네이버TV SM타운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아는 영상을 통해 히트곡 하이라이트를 재현할 예정이다. 영상에는 보아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유영진 프로듀서 등의 인터뷰도 실린다. 2000년 가수로 데뷔한 보아는 12월1일 20주년 기념 음반이자 정규 10집 '베터'(Better)를 발표한다.

넷플릭스 영화 '힐빌리의 노래' 극장서 상영

CGV와 롯데시네마가 넷플릭스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 양사가 넷플릭스 영화를 상영하는 건 봉준호 감독의 '옥자' 동시 상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론 하워드 감독의 영화 '힐빌리의 노래'를 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영화는 11일 개봉해 2주 뒤인 24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CGV와 롯데시네마 모두 2주간의 '홀드백'(개봉 이후 온라인 공개까지의 기간)을 가지는 데 합의했다. 양사는 2017년 '옥자' 개봉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극장과 동시 공개하겠다고 하자 상영을 거부한 바 있다.

이정은, 다큐 '부재의 기억' 해설자로 재능기부



이정은

배우 이정은이 재능기부 형태로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의 화면 해설자로 나섰다. 10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 따르면 이정은과 '부재의 기억' 이승준 감독은 최근 화면 해설 녹음을 마쳤다. 배리어프리 버전은 시각·청각 장애인도 시청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 등을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영화는 세월호 참사 현장의 영상과 통화 기록을 중심으로 해 국가의 부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정은은 "시각장애인 관객 분들에게도 화면 해설 녹음 작업을 통해서 '부재의 기억'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자친구 등 빅히트 레이블 소속 합동 콘서트

뉴이스트와 여자친구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 레이블 소속 가수들이 합동 콘서트에 나선다. 빅히트는 10일 "2021 뉴이스트 이브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바이 위버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월31일 열리는 공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공연장 좌석은 거리두기 방식에 따라 일부만 한정 판매된다. 빅히트 레이블 소속 가수로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이스트, 세븐틴, 여자친구, 엔하이픈 등이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진짜 드라마 작가 데뷔작 맞아? 첫 작품부터 '엔딩 맛집'

'개천용' 박상규, 기자 경험 잘 녹여
'나사스' 이지민, 첩보물+로코 매력
'카이로스' 이수현, 매 회 강력 반전

탐사보도 전문기자·영화 각본가·늦깎이 신인...

저마다 다른 경력의 이들이 새롭게 공략하는 무대, 바로 안방극장이다. SBS 금토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박상규·MBC 수목드라마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지민·M

BC 월화드라마 '카이로스' 이수현 작가가 각기 개성을 한껏 드러내며 시청자 시선을 붙잡고 있다.

박상규 작가는 2016년 저서 '지연된 정의'를 토대로 '날아라 개천용'의 대본 집필 중이다.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담은 책을 유쾌하게 극화해 호평 받고 있다. 박 작가는 탐사보도 전문매체 기자로서 겪은 풍부한 경험을 드라마 곳곳에 녹여냈다. 이를 바탕으로 극중 '생계형' 기자 박삼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이를 연

기하는 배성우는 "박 작가로부터 '참 독특하게 산다'는 느낌을 받아 (연기에)참고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영화 각본가 출신인 이지민 작가는 "나를 사랑한 스파이"로 발랄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 작가는 '남산의 부장들' '전문:하늘에 묻는다' '밀정' 등 진중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주로 써왔다. 연기자 문정혁(에릭)과 유인나가 주인공인 드라마로는 첩보물과 로맨틱 코미디를 버무려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인다. 연출자 이재진 PD는 "이 작가

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쓴 드라마"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수현 작가는 데뷔작인 '카이로스'로 존 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드라마는 한 달의 시간차를 두고 사는 신성록과 이세영이 각자 잃어버린 딸과 엄마를 찾기 위해 공조하는 내용이다. 기묘한 분위기와 빠른 전개가 낯고 작가 이름까지 같아 MBC 예능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출신 작가로 잘못 알려져 이색적인 화제를 모았다. 연출자 박승우 PD는 10일 "첫 드라마임에도 '엔딩 맛집'이란 별명을 얻을 만큼 강력한 반전을 매회 심어놓는 힘이 대단하다"고 극찬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